

아담 스미드의 經濟學과 韓國經濟

崔 虎 鎭*

.....〈目 次〉.....

- I. 『國富論』의 歷史的 貢獻
- II. 스미드 經濟理論의 展開
- III. 스미드 經濟學과 韓國經濟學 및 韓國經濟

I. 『國富論』의 歷史的 貢獻

『國富論』은 아담 스미드가 『道德感情論』(*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 1759)에서 公刊을 約束한지 18年後인 1776년에 發表되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 「스미드」가 國富論 執筆에 얼마나 心血을 기울였는가를 알 수 있다. 스미드 『國富論』이 出版되자 當時 各界의 踴躍한 歡迎을 받아 著者の 生存중에 5版이, 그리고 1799년까지는 이미 10版이 거듭되었다. 프랑스에서는 1779년부터 1802년까지에 四種의 譯本이 나왔다. 『國富論』이 이와 같이 國內外에 盛價를 높인 理由는 무엇인가. 1922년에 런던에서 發刊된 『經濟學의 建設者』(*The Founders of Political Economy*)의 著者 Jan St. Lewinski는 「經濟科學의 起源은 1776년에 스미드의 『國富論』이 刊行된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하고 그 理由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즉 「스미드가 展開한 理論이 部分的으로는 이미 그 以前에 定立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그가 비로소 그것을 一般의 注意를 끌 수 있게 強力한 線으로 나타내었다는 事實로서 쉽게 설명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그리고 「그의 著書는 文體가 明快한 것으로서 또 例示가 適切한 것으로서 有名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스미드가 經濟學史에 남긴 最大의 貢獻은 經濟學에서 經濟外的 특히 政治的 色彩를 完全히 除去하였으며 그리고 철두철미한 經濟活動의 自由를 主張한 데 있다고 본다. 일찍이 1796년에 獨逸의 크라우스(Kraus, C. J.)教授는 「世界는 아직 『國富論』보다도 重要한 書籍을 알지 못하였다. 『新約聖書』이래 이 書籍만큼 人類에 貢獻한 것은 없다」고 하였고 러너(Max Lerner)教授는 캐난(E. Cannan)版 『國富論』序文에서 「스미드는 마치 존 록크가 政治學的 側面에서 哲學者이

* 延世大學校 教授, 韓國經濟學會長

었던 것과 같이 經濟學的 側面에서 資本家的 革命的 哲學者였다」고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다. 그리고 또 「스미드의 學說은 유럽社會를 革命化하였다」고.

『國富論』이 出版된 1776년에 美國은 獨立을 宣言하였다. 스미드는 植民地貿易에 利害關係를 갖는 母國의 金權階級이나 地主階級등의 抵抗속에서 植民地放棄論을 主張하였다. 즉 그리이스나 로마의 古代 植民地에 있어서는 母國과 植民地의 關係가 自由스럽고 그리고 對等하였으며 植民地는 母國에 의해 自治와 自由가 認定된 것으로 英母國과 美植民地의 關係도 이와 같은 關係가 되어야 한다고 스미드는 主張하였다. 그리하여 스미드는 植民地를 母國의 利益의 手段으로 하는 잘못을 力說하였고, 美國의 獨立은 事實으로써 植民地가 母國의 犧牲으로 될을 기꺼워 하지 않음을 立證하였다. 둘째로 美國獨立後라 할지라도 英國의 海外貿易은 조금도 衰退하지 않았기 때문에 從來와 같은 植民地政策의 無用함을 느끼게 하고 이러한 事情이 時代를 움직이는 刺戟으로 되었다. 그리고 當時의 政界의 形勢가 스미드의 學說을 普及시키는데 便宜가 많았던 것을 지적할 수 있다. 휘그(Whig)黨이 오랫동안 政權을 掌握하고 있었을 때 重商主義政策을 採擇해 온 것이지만 美國獨立으로 挫折을 가져오고 政綱을 變更하여 人心을 새롭게 할 必要가 있었으므로 스미드學說에 注意를 기울였다. 그리고 점차 研究를 깊이 하여감에 따라 스미드의 自由放任의 主張은 휘그黨 傳來의 自由民權의 思想과 전혀 共通의 思想인 것을 發見하였던 것이다. 이렇듯이 政界의 事情 또한 스미드思想의 普及에 크게 寄與했던 것이다.

또 스미드의 學說은 英國下院에서 가끔 引用되었다. 政治家 폭스(Fox, C.J.)가 1783年 11월에 「그 冊속에 富裕하게 되는 유일한 길은 支出이 收入을 超過하지 않도록 按配하는 것이다」라고 陳述되어 있다고 하였다. 이 格言은 一個人에게도 國民에게도 다 같이 適用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適當한 行動의 方針은 適宜한 經濟에 있어서 모든 經費를 節減하고 平和스러운 동안에 될 수 있는대로 많은 貯蓄을 한다는 스미드의 主張을 引用하였다. 그리고 宰相 피트(Pitt, W.)는 1792年 2月 豫算演說속에서 資本의 蓄積은 이를 妨害하지 않으면 自發적으로 進行된다는 것을 說明함에 있어서 「이 原理는 簡單明瞭한 것이기는 하지만……나는 그것이 오늘날의 時代의 어느 一名의 學者(스미드)의 著作 以外에 果然 오늘에 이르기까지 完成되고 充分히 說明되어져 있는가 어떤가를 疑心한다」고 말한 것들은 그 例이다. 피트는 스미드에 따라서 關稅制度의 單純化 및 稅率의 引下를 통하여 密輸入을 防止하고 프랑스와의 對抗이 英國의 一切의 政策의 傳統이었음에도 不拘하고 對佛貿易의 制限을 緩和하고 드디어 1786년에는 最初의 對佛通商條約에 調印하였다. 와이트브레드(Whitebread)가 1795년에 下院에서 賃金公定制度의 復活을 提議하였을 때에 피트는 스미드의 이름을 들고 「自

由放任」이란 이름으로 이 動議에 反對한 事實은 너무나 有名하다. 더우기 1800년에는 노드 卿(Lord North)이 多年의 懸案이었던 아일랜드併합을 斷行하였다. 그리고 1846년의 穀物 關稅法의 撤廢 및 1860년의 保護關稅의 廢止도 스미드의 自由主義 그리고 自由貿易의 運動의 結實인 것이다. 데이비드 리카아도와 칼 마르크스는 스미드理論중에서 生産과 供給의 側面을 重視한 데 대하여 맬더스는 스미드理論중에서 消費과 需要의 側面을 重要視하였다. 스미드의 理論에는 이 두 側面이 包含되어 있으므로 맬더스와 리카아도는 더불어 스미드에서 誕生한 兄弟라고도 말할 수 있다. 리카아도는 아직 過剩生産과 恐慌의 可能性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지만 맬더스는 生産이 過剩되어 一般的 過剩生産이 일어날 수 있음을 認識하였다. 20世紀에 들어와서 케인즈(J.M. Keynes)가 다룬 것도 맬더스와 같은 問題이었다. 여기서 우리는 스미드에서 出發하여→맬더스를 거쳐→케인즈에 이르는 理論의 展開를 明確히 認識할 수 있다. 더우기 케인즈는 맬더스가 보지 못한 즉 資本主義의 一般的 危機와 構造的 失業을 보았던 것이다.

II. 스미드經濟理論의 展開

스미드에 의하여 礎石을 이룬 資本主義經濟理論은 D.리카아도, J.S. 밀 등에 의하여 代表되는 古典學派를 이어 받아 이른바 資本主義經濟學의 主流를 形成한 것이 所謂 近代經濟學이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近代經濟學은 1870年代를 起點으로 하여 展開된 經濟學說 즉 오스트리아學派, 로잔느學派, 케임브리지學派의 經濟學을 總括하여 指稱한다.

『國富論』이 發刊된 以後 1百年後에는 資本主義理論이 이와 같이 發達하여 온 것이다.

古典學派가 生産, 供給 및 分配問題를 重要視한 데 대하여 近代經濟學에서는 消費, 需要 및 効用問題등을 中心으로 하는 均衡分析에 重點을 두었으며 이러한 추이는 限界効用이라는 概念의 導入에 의해서 비롯되었다. 限界効용의 概念이나 需要分析이 近代經濟學의 始祖 W.S. 제본스나 C. 멩거, M.E.L. 왈라스 등에 의하여 突然히 나타난 것은 아니며 리카아도의 後繼者들에 의하여 그 萌芽가 싹트었다.

그러나 1870年代에 이르러 需要와 効用分析을 中心으로 한 經濟理論이 體系化되어 學界를 風靡하였다는 점에서 흔히 1870年代를 近代經濟學의 誕生기로 보는 것이다. 古典學派의 經濟理論은 앞서 본 바와 같이 資本主義의 隆盛期에 樹立된 것이기 때문에 生産을 分析의 出發點으로 하여 近代社會의 生産力의 源泉을 究明하고 生産物이 諸階級間에 分配되는 法

則을 밝히는데 沒頭했지만 資本主義의 發達과 더불어 經濟現實이 變化하게 되자 古典學派의 經濟理論은 修正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되고 스미드가 展開하지 못하였던 交換過程 특히 價格形成을 설명하는 根本的인 要因으로서 心理的 主觀的 要因 즉 效用問題가 새로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이와같이 發達한 近代經濟學은 1920年代에 이르러 一大轉期를 맞이하게 되었다. 第1次 世界大戰을 계기로 하여 資本主義는 獨占段階에 들어갔으며 그에 따라 價格의 自動調節機能이 마비될과 동시에 景氣變動이 激化되었다. 특히 1929年의 世界大恐慌은 均衡理論에 단 골몰하고 있던 近代經濟學을 크게 동요시켰고 그에 따라 近代經濟學의 內部에서는 일련의 反省이 일어나게 되어 一名 現代經濟學이라 일컫는 새로운 經濟理論을 誕生시켰다. 1930年代부터는 獨占의 問題에 관한 勞作이 연달아 나타났으며 또 「豐饒속의 貧困」이라는 말로 특징지워지는 經濟現實은 有効需要를 기초로 하는 J.M. 케인즈의 理論을 誕生시켰다.

케인즈는 有効需要의 不足이 非自發的 失業을 가져온다고 보고 完全雇傭을 實現하기 위한 有効需要增加의 理論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케인즈의 『一般理論』은 특히 所得, 貯蓄, 投資, 消費의 經濟循環을 總體的으로 分析하는 巨視經濟學의 劃期的 著書이기도 하였다. 즉 케인즈는 社會集計量인 所得, 貯蓄, 消費, 投資의 諸關係를 巨視論的으로 밝힘으로써 그의 理論體系를 樹立했으며 有効需要는 財貨購入을 위한 貨幣支出이므로 社會의 經濟活動水準은 有効需要의 크기 여하에 따라서 決定된다고 하였다.

여기서 古典學派經濟理論에 있어서 根本的인 特徵을 表示하는 法則 즉 저 有名한 「供給은 그자체의 需要를 창조한다」는 세이의 法則은 正當性을 의심받게 되었다. 그리하여 케인즈는 貯蓄된 것이 投資될 機會가 없는 資本過多의 社會에서는 저축이 오히려 社會的 惡德이되며 消費야 말로 有効需要를 喚起시키는 社會的 美德이라고 찬양하게 되었다. 따라서 흔히 케인즈 理論을 「不況의 經濟學」 내지는 「有効需要理論」 또는 「消費理論」이라고 부른다.

所謂 近代經濟學이 誕生한지 60年後이며 스미드의 經濟理論이 世上에 發表된지 150年 後에 케인즈의 經濟理論—有効需要의 理論이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포스트 케인즈 혹은 新古典學派라고도 지칭받는 一部の 經濟學者들은 投資는 長期的으로 볼 때 所得增大를 招來할 뿐만 아니라 產出能力 즉 生産力의 增大를 招來한다고 본다. R.F. 해로드와 E.D. 도마가 그 代表者라 할 수 있으며 그들은 投資를 長期的으로 보아 有効需要의 增加와 產出能力增加의 二重的 立場에서 完全雇傭을 考察하려 하였다. 다시 말하면 投資의 長期的 過程은 한편으로는 所得을 增大시킴으로써 有効需要를 創出함과 同時에 다른 한편으로는 產出能力인 固定資本設備를 加速度的으로 增加시킴으로써 生産

을 激增시킨다는 投資의 二重性을 지적하고 投資의 矛盾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그들의 이러한 理論을 一名「矛盾의 理論」이라고도 지칭한다. 특히 해로드는 經濟成長을 決定하는 要因으로서 ① 人口, ② 1人當 產出高 또는 所得, ③ 利用可能한 資本量등을 들고 다음과 같은 成長率을 規定하고 있다. 즉 人口增加와 技術進步에 基因하는 總產出高의 成長率을 自然成長率(G_n)이라고 하고 企業家에게 極大의 利潤을 保證해 주는 成長率을 適正成長率(G_w)이라 하며 各企業家의 現實的인 總產出高의 成長率을 現實成長率(G_a)이라 전제한 다음 適正成長率이 現實成長率과 一致할 때에는 均衡成長率이 實現되며 矛盾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自然成長率이 適正成長率이하의 傾向이 있을 때에는 資本過剩의 經濟現象이 나타나서 非自發的인 失業이 發生한다고 한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貯蓄은 沈滯을 深刻하게 할 뿐이므로 저축이 社會的 惡德으로 된다는 케인즈의 理論이 妥當하게 된다. 그러나 自然成長率이 適正成長率을 초과하는 傾向이 있을 때에는 資本不足의 現象으로 失業이 發生하기 때문에 資本의 不足을 克服하기 위한 貯蓄은 社會的 美德으로 된다는 스미드의 理論이 妥當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前者의 경우는 投資機會가 없는 資本過多의 社會 즉 先進國의 成熟經濟에 해당하며 後者의 경우는 資本過少의 社會 즉 後進國에 해당되는 理論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理論에 立脚하여 해로드는 投資에 의한 所得의 擴大效果와 投資의 產出能力擴大效果를 究明하고 또 投資에 의하여 增大된 產出能力을 完全利用하는데 必要한 投資와 所得의 成長率을 밝히고자 하였다. 따라서 이 점은 스미드의 『國富論』의 資本蓄積理論과 一脈相通한다고 볼 수 있으며 더우기 適正成長率이 自然成長率보다 작은 때는 貯蓄이 社會的 美德이 된다는 見解는 더욱 그러하다. 이런 점에서 最近의 經濟成長理論은 스미드에 의하여 創立된 古典經濟學을 再認識하려는 노력의 一面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1970年代에 들어 와서는 이른바 石油波動이래 先後進國을 莫論하고 資源節約問題등이 論議되고 있어 스미드에 의하여 唱導된 節約美德論이 再燃되고 있는 점은 스미드의 『國富論』發刊의 2百周年을 맞이한 現今에 있어서 아이러니칼한 問題라 하겠다.

III. 스미드經濟學과 韓國經濟學 및 韓國經濟

1.

우리나라에 英國의 古典學派經濟思想이 導入된 것도 1870年代에 西歐의 開化思想과 더불어 우리나라 사람에게 의하여 혹은 外國人에 의하여 導入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1910年代 韓日合併 前後에는 몇 種類의 著譯書로 된 經濟學書籍이 刊行되어 그것을 통하여 스

미드의 學說이 部分的으로나마 우리나라에 紹介되었으며 合併後에는 直接 植民地高等教育 機關에서의 植民地教育을 통하여 傳播되었다고 볼 수 있다.

日帝下에 이 땅에 있어서 最高教育機關이라 하면 唯一의 大學인 京城帝國大學을 指稱할 것이다. 여기서 教育을 받고 있던 韓國人學生은 日本人의 그것에 비하여 훨씬 적은 數字였으며 植民地大學이라 하여 人文·社會科學을 教授하는 法文學部라는 곳에는 政治學科와 經濟學科를 設置하지 않고 다만 法科, 文科 兩科만을 設置하여 法律學과 文學만을 教授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朝鮮人으로 經濟學, 商學등의 大學教育을 받고자 하면 朝鮮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되었다.

물론 法文學部에서는 經濟學을 補助科目으로 教授하였다. 여기서 단편적이거나 스미드의 學說이 紹介되었다.

그러나 스미드의 學說이 우리나라 學者에 의하여 體系的으로 紹介된것은 解放直前 즉 1943년에 當時 普成專門學校 教授였던 尹行重氏에 의하여 스미드學說의 一端이 紹介되었다고 할 수 있다. 尹教授는 1943년에 「現代經濟學의 諸問題」라는 論文集을 發刊하였다. 同書 7面으로 부터 9面에 걸쳐 「富의 概念에 關하여」라는 論文에서 스미드의 學說을 紹介 批判하였다. 그리고 解放直後에는 앞서 말한 京城帝國大學이 美軍政下에서 京城大學으로 改稱되고 「法文學部」에 우리나라 教育史上 처음으로 經濟學科가 新設되어 原書講讀이란 科目에서 스미드의 『國富論』을 教材로 採擇한 기억이 난다.

우리말로 우리나라의 教授에 의하여 講義가 이루어졌던 것이다. 以後 昇格 그리고 新設된 各 大學의 經濟學科, 商學科에서는 스미드의 學說을 原文을 통하여 혹은 國譯을 통하여 紹介 解說되었다.

한편 1948년에는 孫膺錄教授의 國譯 J.레빈스키編 『經濟學의 建設者들』(J. Lewinski, *The Founders of Political Economy*, 1922, London)이 發刊되어 아담 스미드의 學說을 널리 認識시키는데 크게 寄與하였다.

1948년부터는 經濟原論, 經濟學大要, 經濟大意등 스미드의 學說을 詳細히 紹介하는 啓蒙書籍이 繼續 出刊되어 高等教育에 있어 그리고 社會에 寄與하는 바가 컸었다.

2.

다음에 韓國經濟建設에 있어 스미드의 經濟學說은 經濟 各 分野에서 크게 影響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그가 主張한 經濟的 個人主義, 自由主義, 市場에서의 價格을 통한 自動調節機能, 利子論, 自由貿易, 課稅原則, 資本蓄積, 投資財源으로서의 貯蓄, 節約등 이곳에 일일이 列舉하기 어렵다.

끝으로 한 마디 할 것은 다른 나라에 비하여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스미드가 十數年에 걸쳐 鍊磨한 不朽의 名著『國富論』의 國譯이 最近 數種 나오고 있다는 事實이다.

解放後 30年間に 걸쳐 우리나라의 學界는 先進 諸國家에서의 各種 學說에 거의 접하였다 고 하여도 過言이 아니다. 즉 解放直後에는 社會主義思想이 知識層 內에서 모든 것을 支配하였었기 때문에 社會主義經濟學의 潮流가 學界를 風靡하고 있었던 감을 주었다. 그리 하여 大學에서는 아담 스미드流의 古典經濟學說의 講義까지도 白眼視당하였던 일조차 있었다. 그러나 점차 政界도 어떠한 路線을 찾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으며 따라서 學界에서도 興奮을 진정시키고 冷靜히 學問이 무엇이며 왜 우리들은 學問을 하는가를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學徒들은 6.25動亂 直後부터 제법 眞摯한 態度를 갖게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社會自體가 開發途上에 있는 만큼 高度로 發達된 先進社會의 經濟理論 및 政策이 그대로 이 땅에 適用된다고는 믿지 않는다. 그러므로 아직도 古典學派, 正統派의 모든 學說이 올바르게 紹介되는 것을 要望하고 있는 同時에 先進工業國家의 現代의 經濟學說에 대하여도 熱意를 가지고 있다.

그리하여 資本主義 經濟理論과 現代理論이 相互 補完하여 가면서 政策面에 있어서도 서로 適用의 機會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